

완도군, 전국 첫 해양·산림치유 공간 만든다

‘약산 해양치유체험센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보고

20억 들여 내년까지 치유테크·해수욕탕·치유의 방 등 건립

완도군이 전국 최초로 해양·산림 치유 공간을 조성한다.

완도군은 지난 24일 ‘약산의 해·경(海·景), 치유에 답다’라는 비전으로 ‘약산 해양치유체험센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완도군은 산림치유를 테마로 추진하고 있는 ‘약산 치유의 숲’ 조성에 해양치유를 도입해 국내 최초 해양·산림치유 공간인 약산 해양치유체험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2021년까지 해수욕탕(해수욕기 치유), 해양치유길 및 치유테크, 해수욕탕, 해양치유의 방 등이 조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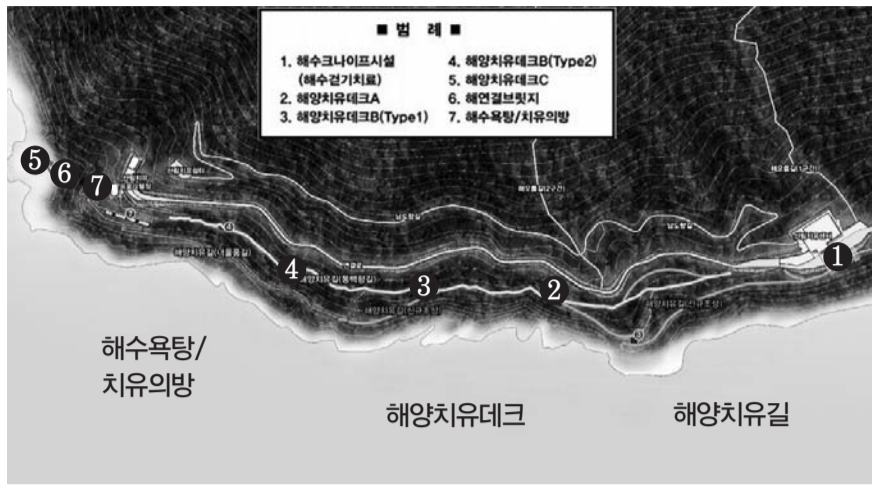
주요 프로그램은 치유센터에서 자가 건강체크를 하고 해양치유시설을 통해 아쿠

아 테크닉 걷기, 요가, 해수 디톡스 온열요법, 해조류 테라피 등이다. 자신에게 맞는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단기 체류형과 장기 체류형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앞서 완도군은 지난 20·21일 이틀간 해양치유 관련 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신우철 완도군수 주재로 열린 워크숍에서는 총 31개 전략 과제 추진상황과 부서 간 협조 사항 등을 논의했다.

주요 전략 과제는 해양치유 공간 조성, 생태계 구축, 기반 조기 마련 등 3가지 목표 아래 해양치유 지구 지정, 여촌 뉴딜 300 사업 연계 해양치유형 여촌마을 선정, 해양치유 연계형 문화 관광 콘텐츠 개발 등이다.

완도군은 내년 2월19일 시행 예정인



완도 약산 해양치유센터 조감도.

‘해양치유산업 관련 법률’안을 분석하고 이에 맞춰 사업계획 반영을 준비 중이다. 해양수산부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완도군 관계자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약산에 조성되는 국내 최초 해양과

산림치유 공간이 주민의 건강 증진과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최종 보고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반영해 올해 실시계획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완도·해남·진도 등 3개 지자체가 협력해 조성한 남도광역추모공원 동백당.

완도군민, 남도광역추모공원 이용률 증가 개원 이후 화장 313기...시간·경제적 손실 줄어

완도·해남·진도 등 3개 지자체 연계협력 사업으로 해남 황산면 원호리 일원(8만 7062㎡ 규모)에 조성한 남도광역추모공원 내 화장시설과 봉안당 안치에 완도군민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26일 완도군에 따르면 남도광역추모공원은 총 사업비 195억원이 투입해 지난해 4월 준공했다. 개원 이후 지금까지 화장 1572건, 봉안당 안치 309기의 이용률을 보였다.

완도군민은 화장 313기, 봉안당 안치에 30기를 이용했다.

광역화장장 개원으로 완도군민들의 장례문화가 개선되는 등 군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서남권 공동 발전의 모범적인 선례가 되도록 완도·해남·진도 3개 지자체가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그동안 완도군민은 화장장이 없어 목포, 광주 등 다른 지역으로 원정 장례를 치

러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불편을 겪어야 했으나 화장장 시설 준공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3개 지자체가 예산을 공동 부담한 화장시설은 연간 최대 2400구를 화장할 수 있는 화장로 3기가 있고, 제1봉안당(동백당)은 연면적 1736㎡로 9660여기를 안치할 수 있는 지상 2층 규모의 건물 1동으로 이뤄져 있다.

이와 함께 유족들을 위한 유가족실, 매장점과 식당 등 편의시설을 갖췄고, 화장 진행 중인 정보를 방송과 영상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유족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화장시설 이용료는 화장장의 경우 완도군민은 7만원(완도·해남·진도를 제외한 관외 군민 50만원)이며, 봉안당은 50만원(완도·해남·진도를 제외한 관외 군민 100만원)으로 책정됐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해남 두륜산 편백나무숲.

‘울울창창’ 숲으로...해남 산림자원 키운다

해남군, ‘새산새숲만들기’ 조림사업 박차 4월까지 경제림 등 총 160ha에 수목 식재

해남군은 숲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새산새숲만들기 2020 조림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남군은 울해 국·도비 등 22억9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경제림 43ha, 큰나무조림 27ha, 미세먼저 저감조림 30ha, 황칠특화조림 60ha 등 총 160ha 면적의 조림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온난화에 대비하고 미세먼저 저감 등 경제성이 이용가치가 높은 수종을 선택, 산림자원의 산업화 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경제수 조림은 목재펠릿·펠프제 등 바이오매스 원료를 공급하는 바이오순환 조림에 8ha,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한 산림을 조성하는 목재생산 조림 23ha, 특용수 12ha 등으로 백향나무·편백나무 등 속성수를 식재해 조성하게 된다.

특히 단기 소득 창출이 가능한 특용자원 조림으로 화산면 방축지구 등 13개 지구에 60ha 규모의 황칠 특화림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해남군은 오랜 전통을 가진 해남 황칠나무의 산업화 기반구축을 위해 공모사업을 통해 약 360여ha를 식재하는 등 황칠나

무 재배를 규모화하고 있다.

이밖에도 도시 인근에 미세먼저 저감효과를 위한 큰나무 30ha를 식재해 생활권 녹화를 확충하고, 산불 피해지와 마을 인접지, 농경지 주변에는 각종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큰 목목을 식재하는 공익조림 및 산림재해 방지 조림사업을 27ha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다.

울해 조림사업 규모는 총 25만8000본이며, 4월까지 사업을 완료한다.

해남군 관계자는 “조림대상지를 연중 수시로 산정분야 현장 확인을 거쳐 최종 사업 대상지를 결정하고 있다”며 “나무를 심고 가꾸는 실천이 미래 세대에 경제적·환경적 자원이 되는 만큼 산림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고용 기업·청년에도 장려금 해남군, 최대 550만원 지급

해남군은 중소기업의 청년 취업 촉진과 장기근속을 위한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취업장려금으로 1인당 3개월간 기업에 총 200만원, 청년에게는 300만원을 지원한다.

2년차에는 고용유지금으로 분기별로 기업에게는 최대 150만원, 청년에게는 300만원.

3년차에는 근속장려금이 기업 최대 150만원, 청년 400만원이 지원된다.

4년차에는 청년에게만 장기근속금으로 최대 500만원이 지원된다.

대상은 해남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만 18세~39세 이하 1~4년차 청년 근로자가 근속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3월 6일까지 해남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관련서류를 내려 받아 해남군청 인구조직과 일자리창출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청년 근속장려금을 통해 해남 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이 장기근속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진도 향토 기업 대표총리는 최근 한국남동발전·태양광발전연구소와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진도군 제공>

진도 대표총리, 한국남동발전·한국태양광발전연구소와 신재생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양해각서 체결

진도 향토기업인 신재생에너지 전문업체 ㈜대표총리(이하 대표총리)가 국내외 시장 개척을 위한 보폭을 넓히고 있다.

26일 진도군에 따르면 ㈜대표총리는 최근 서울에서 한국남동발전(주), 한국태양광발전연구소와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이들 기관은 상호 보유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신산

업 분야의 정보, 기술, 자원 등의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향후 공동사업을 개발·추진한다.

김남중 대표총리 대표는 “진도 향토기업을 넘어 국내외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며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 등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손해보험협회

한 사람의 보험범죄 전국민의 경제부담

2016년 9월 3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날로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늘어나는 국민손실, 보험사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보험사기, 반드시 적발됩니다.

